

토론:

“현대 교육의 고민과 불교의 역할”에 대한 토론

윤 영 해

(서강대 강사)

오늘의 발표문은 본격적인 연구 논문이라기 보다는 이 학회의 탄생과 앞날의 방향에 관한 기초 연설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므로 토론자도 그에 따라 동감의 말씀을 나누거나 앞으로의 문제들을 함께 논의해 보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나에게 그러한 자격이나 능력이 있다고 생각되지 않기 때문에 나는 다만 주제발표에 대한 한가지 질문과 이 모임에 대한 한가지 소망을 말하고자 한다.

미국에서 REA, 즉 Religious Education Association이라는 이름의 종교교육학회가 발족된 것은 지금으로부터 93년전인 1903년 이었다. 비록 90여년이 뒤지기는 했지만 한국에서도 “한국종교교육학회”라는 이름의 새로운 공동체가 발족하게 된 것을 종교학도의 한 사람으로서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한다. 아울러 이러한 모임의 탄생을 위해서 그 동안 준비해온 여러분들의 노고에 먼저 감사의 말을 보낸다. 특히 이 모임의 실질적인 산파역을 해온 한국종교교육학회 준비위원인 박선영 교수에게 특별한 감사의 말을 드려야겠다.

우리가 낯선 사람을 처음 만나게 되면 우선 가장 궁금한 것은 그 사람의 정체일 것이다. 그가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 어떤 사람인지를 가장 먼저 알고 싶은 것이다. 마찬가지로 처음 출발하는 “한국종교교육학회”의 창립총회에 즈음해서 가장 먼저 궁금한 점은 이 학회의 입점(立點), 즉 정체성에 관한 것이다. 이 학회의 이름이 종교교육학회인 것을 보면, 종교라는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집단을 다 아우르고자 한다고 짐작된다. 그런데 오늘 발표한 주제발표의 제목이나 내용으로 보자면, 특히 불교의 입장에 서고자 하는 것을 읽을 수가 있다.

이런 점에서 이 학회의 입장이 불교적인 입장에만 서고자 하는 것인지, 아니면 불

교를 중심으로 해서 다른 종교를 결들이고자 하는 것인지, 그것도 아니면 모든 종교들과 아무런 차별없이 동참하겠다는 것인지 분명한 입장이 궁금하다.

이러한 관심은 이 모임이 앞으로 어떠한 활동을 할 것인가라는 관점에서 중요하지 않을 수 없다고 여겨진다. 오늘 여기 처음으로 참가하는 많은 분들이 공통적으로 갖는 첫 관심사가 아닐까 생각되어 대신 질문을 하고자 한다.

나아가 오늘의 주제발표가 시사하는 것처럼 “불교적 입장에 중심을 둔다”고 하는 것은 정확하게 무슨 뜻일까? 그것은 불교라는 이념이나 가치체계 위에 서서 그것을 직접 실천하는 데에 노력하고자 하는 것일 수도 있겠다. 한편, 불교적 가치체계 밖에서 서서 그것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관심일 수도 있다. 즉 내가 가장 궁금해 하는 것은 이 모임의 목적이 종교적인 것이냐 학문적인 것이냐 하는 것이다.

혹시 종교적인 것과 학문적인 것을 갈라서 생각할 수 있는가라는 의문이 있을 수도 있겠다. 그러나 종교교육학을 비롯한 모든 분야의 종교학은 자신의 정체성 및 방법론과 관련하여 자신의 노력이 종교 “에 대한” 관심과 노력이나 혹은 종교 “를 위한” 관심과 노력이나라는 물음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

이 모임의 목적이 종교적 가치를 직접 실현하는 데에 일조를 하고자 하는 것인지, 아니면 종교에 대한 객관적이고 학문적인 관심을 위한 것인지를 분명히 하는 일은, 이 학회가 종교교육학회인 한 중요하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된다. 만일 이 모임이 여러 종교들의 가치체계를 직접 실천하고자 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면, 다종교 사회에서 서로 다른 다양한 종교적 가치들을 어떻게 조화시킬 수 있을 지가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다. 불교 교육은 불교적 세계관과 가치를 실현시키고자 할 것이고 기독교 교육은 기독교적 세계관과 가치를 실현시키고자 할 것이기 때문이다. 돈독한 불자를 교육하고 돈독한 기독교자를 교육시키는 일이 다종교 사회에서 종교간의 긴장과 갈등을 조장하는 결과를 초래하지는 않을까 걱정하는 것은 어리석은 염려에 불과할까?

혹시 모든 종교들의 세계관과 가치는 다같은 한가지라고 말하고 싶은 사람들도 있을지 모르겠다. 그러나 그러한 판단과 합의를 위해서는 아직 많은 논의와 검증이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 종교에 대한 전문가들의 일반적인 견해라고 생각된다.

한편, 발표자가 지적한 대로 교육이 실행될 수 있는 환경으로서 가정과 사회와 학교가 있다면, 가장 중요한 곳은 역시 학교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학교는 종교교육에 있어서도 역시 가장 중요한 환경이 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이 학회에 소망하고 싶은 것은 학교에서의 종교교육과 관련된 것이다.

가정이나 사회에서 시행되는 종교교육은 분명 종교적 가치의 직접적 실천을 위한

교육, 즉 교단교육 혹은 종파교육이 될 것이다. 그러나 한국 학교에서의 종교교육은 종파교육일 수가 없다. 왜냐하면 우리 나라의 학교-특히 중등학교-에서의 종교교육은 공교육(公敎育)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한국의 중등학교들 중에는 분명 많은 사립학교들이 있다. 사립학교란 자신만의 건학이념을 가지고 있어서 그에 따라 교육을 실행할 권리를 가진다. 특히 특정한 종교적 이념아래 건립된 종립학교들은 그 특정한 종교적 이념을 교육시킬 권리가 있다. 그러나 한국의 사립학교들은 실제적으로 공립학교화된 것이다. 한국의 교육법은 공교육 안에서는 특정한 종교적 이념을 교육해서는 안 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물론 실제적으로는 종립학교들이 자신들의 특정한 종교적 이념을 교육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것은 위법이며 불법이다.

한국의 종립 중등학교들은 특정한 한 종교의 이념만을 주입식으로 교육하고 있으며-그것도 불법적으로-모든 공립학교들은 종교교육을 아예 외면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공립학교의 학생들은 종교교육을 받을 기회를 갖지 못하며 지역학교화한 종립학교의 학생들 중에서는 종교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박탈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중등학교의 교육기간은 한 사람의 가치관이 터전을 잡는 중요한 시점이다. 이 기간에 한국에서는 종교교육이 전혀 이루어 질 수 없도록-적어도 법률적으로는-되어 있다. 그러므로 인류의 문화와 인간의 인격에서 갖는 종교의 중요성이 한국의 청소년들에게서는 무시되고 있는 것이다. 공립학교에서는 종교교육이 반드시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종교교육은 맹목적인 과학주의와 극단적 세속화의 시대에서 상실되어 가는 인간성을 부지하기 위해서는 버릴 수 없는 덕목이라고 여겨지기 때문이다. 또한 사립학교에서는 특정 종교의 이념이 편파적으로 교육되지 않도록 해야만 할 것이다. 이것은 다종교 사회에서 다양한 종교들이 갈등과 알력이 아니라 조화와 공존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덕목이기 때문이다.

현재 교육부는 중등학교에서 “종교”를 선택과목으로 설정하고 그 교육과정을 준비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다. 이제 한국종교교육학회가 출범하는 이상 이러한 문제의 중요성을 간과하지 말고 주의를 기울여 주기를 소망하는 바이다. 그것은 모든 교육에 있어서 학교교육은 더없이 중요하며, 그 중에서도 특히 중등학교에서의 교육은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학회와 여기 모인 분들이 특히 불교적 신념을 가지고 출범한다 하더라도 이러한 관심과 노력은 회피할 수 없는 것으로 생각되는 것이다.